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부터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모둠별 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조선 시대 중요한 건축 재료인 ‘궁궐의 박석’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박석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박석은 화강암을 10~15센티미터 정도의 두께로 잘라 낸 얇고 넓은 돌입니다. 박석은 주로 임금님 다니던 길인 경복궁 근정전의 앞마당과 왕릉 진입로인 참도 등에 깔려 있습니다.

박석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박석이 깔린 길을 환히 보이게 합니다. 그 이유는 화강암에 유리의 주성분인 석영과 투명한 백운모가 들어 있고, 여기에 난반사의 원리까지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반짝거리는 화강암을 좀 거칠게 갈면 표면이 우툴두툴해지는데, (난반사와 정반사의 그림을 보여주며) 이 박석의 거친 표면은 빛을 각각의 방향으로 반사시키므로 박석이 깔린 공간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한 방향으로만 반사되어 눈부심을 초래하는 정반사와 달라서 눈부심 없이 보이게도 합니다.

박석은 비가 올 때 그 기능이 더 돋보입니다. 비가 오면 수막현상 때문에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여주며) 박석의 우툴두툴한 표면은 수막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약화시켜 궁궐의 왕이나 관리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박석은 궁궐 앞마당에서 대신들에게 말하는 임금의 목소리를 웅장하게 들리도록 해 주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주며)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궁궐을 둘러싼 행각의 처마에 반사된 소리가 바닥에 닿으면 박석은 그 소리를 되받아 올려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페라하우스의 모든 청중석에서 거의 비슷한 크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눈여겨보지 못했던 ‘궁궐의 박석’을 통해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느낄 수 있었나요? 다음 주에 현장체험학습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에 가게 되는데요, 이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과 같이 박석에 대해 새롭게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했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발표 내용을 조절하고 있다.
 - ② 발표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 ③ 발표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앞부분에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듣게 하고 있다.

2. 다음은 학생의 발표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주제 제시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석의 생김새와 쓰임 ↳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박석 사진에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켜야겠다. ㉠ ◦ 빛을 반사하는 박석 ↳ 그림을 활용하여 박석이 빛을 난반사시키는 모습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겠다. ㉡ ◦ 수막현상이 거의 없는 박석 ↳ 사진을 활용하여 박석의 효용성과 한계를 효과적으로 제시해야겠다. ㉢ ◦ 소리를 반사하는 박석 ↳ 동영상을 활용하여 소리가 반사되는 과정을 실감 나게 제시해야겠다. ㉣
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석에 대한 관심 당부 ↳ 인용구를 활용하여 박석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해야겠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청자 1: 나도 비 오는 날 미끄러워서 걷기 힘들었는데 그게 수막현상 때문이었구나. 비가 오면 수막현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수막현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아쉬웠어.

청자 2: 박석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어. 다만 일제 강점기 때 창덕궁의 박석을 잔디로 바꿔 놓았던 역사적 사실도 함께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청자 3: 지난주에 경복궁에서 박석이 깔린 길을 걸었는데 그 길이 임금님이 다녔던 길이었구나. 박석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도 알게 되어서 유익했어.

- ① 청자 1은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청자 2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발표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청자 3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④ 청자 1과 청자 3은 모두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⑤ 청자 2와 청자 3은 발표를 통해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4~7] (가)는 문학 동아리 학생들의 회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학교 ‘명사 초청의 날’ 강연을 우리 동아리에서 주관하기로 한 거 알지? 어떤 분을 강연자로 모시면 좋을까?
학생 2: 우리 동아리 선배님들 중 한 분을 모시면 어때?
학생 1: ㉠ 그러면 강연자를 우리 동아리 부원들만 친근하게 느낄 것 같아. 2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라는 걸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 3: 나도 동의해. ㉡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 축제에서 우리가 몇몇 시인의 작품을 전시했을 때, ○○○ 작가 시에 가장 많은 감상평이 달렸던 것 생각나지? 그래서 이번에 작가 ○○○를 초청하면 어떨까?
학생 2: 응, 기억난다. ○○○ 작가 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컸었잖아. 그분을 초청하자는 거 괜찮은 생각이다.
학생 1: 다들 동의하는 거면 ○○○ 님께 강연을 부탁드리는 글을 써서 보내자.
학생 2: 그럼 글에 들어갈 내용으로 무엇이 있을까? 행사 목적이랑 작가 이력은 들어가야 할 것 같고.
학생 3: 행사 목적은 포함해야겠지만, 작가 이력은 행사 당일 배부하는 강연 안내 자료에 신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학생 1: 그게 좋겠어. 그리고 행사 계획이랑 강연 뒤에 [A]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려 드리자.
학생 2: 그래. 그리고 난 무엇보다 우리가 왜 그분을 초청하고 싶은지를 꼭 썼으면 해.
학생 1: 그러려면 지난번 축제에서 그분의 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언급하면 좋겠지?
학생 3: 응, 축제 뒤에 그분의 시가 왜 좋은지 조사한 설문 결과도 같이 써 주면 좋겠다.
학생 1: 그리고 ○○○ 님이 강연에 응해 주신다면, 감사의 의미로 그분의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
학생 2: 그거 참 좋다. 그럼, 내가 지난번 문학 평론집에서 본 그분의 시가 있는데, ‘◇◇’ 어떨까?
학생 3: 난 그거보다 우리 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린 시 ‘△△△’가 더 좋다고 생각해. ㉢ 이 시가 ‘◇◇’보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시라고 생각하거든.
학생 2: 그래, 우리가 잘 아는 ‘△△△’가 더 낫겠다. 강연 시작 전에 시 낭송이 있을 거라고 알려 드리자.
학생 3: 응, 그래.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야 한다고 쓰자.
학생 2: 그런 표현은 그분께 자칫 부담이 될 것 같아.
학생 1: ㉣ 강요하듯 부탁 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지?
학생 2: 응,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강연을 부탁드리는 게 좋겠어.
학생 3: 그러자. 내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네.
학생 1: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 님을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학생 2: ㉤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그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면 어떨까? 그분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가 시작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생각한 건데, ○○○ 작가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소리’로 표현하면 어때?

학생 3: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학생 1: 나도 좋아. 그럼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글을 써 보자.
학생 2, 3: 그래.

(나)
 ○○○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문학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해마다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명사 초청의 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가님께 글을 쓰는 이유는 올해 행사의 강연자로 작가님을 모시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축제 때 저희 동아리는 여러 시인의 시를 전시하였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작가님 시에 가장 많은 감상평을 달았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작가님의 시가 왜 좋은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상의 소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작가님 시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작가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올해의 행사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강연의 내용은 작가님께서 행사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 일시: 2019. 10. 18.(금) 17:00~19:00
- 장소: □□고등학교 3층 강당
- 대상: 2학년 전체 학생들
- 주제: ‘우리 일상에서 시가 갖는 가치’

작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강연이 시작되기 전에 문학 동아리 학생들이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가님의 시 ‘△△△’를 낭송하려고 합니다. 강연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a

4. 회의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제안이 실현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을 언급한다.
- ② ㉡: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상대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환기한다.
- ③ ㉢: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제시한다.
- ④ ㉣: 상대의 의도를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 ⑤ ㉤: 상대의 제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추가 의견을 제시한다.

5. [A]에 드러난 회의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이 지닌 문제점을 제시하며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 ②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을 수용한 후 근거를 덧붙여 구체화하고 있다.
- ③ 학생 2는 학생 1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비판하며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일부 인정한 후 상대방과 생각이 다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6. (나)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을 알리면서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혀야겠어.
- ② 축제 때 전시한 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전하며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은 이유를 드러내야겠어.
- ③ 행사 계획을 제시하여 행사에 대한 안내를 해 주어야겠어.
- ④ 강연 전에 낭송할 시를 소개하면서 시를 낭송하려는 취지를 담아야겠어.
- ⑤ 강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해 학생들이 지닌 기대감을 써 주어야겠어.

7.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많이 바쁘실 텐데 강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청한 곡이 나오는 라디오의 노랫소리처럼 반갑게 느껴질 작가님을 기다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 ② 작가님의 강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작가님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 ③ 작가님의 시에 마음 깊이 공감하는 저희에게 강연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 강연을 통해 작가님과 더 가까워지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 ④ 이번을 계기로 작가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폴벌레 소리 들리는 가을 저녁에 저희와 함께하시겠다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 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작가님의 시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학생들을 생각해 꼭 와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 활동]

- 과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글을 쓴다.
- 주장: 고궁 무료 관람 혜택 대상에서 퓨전 한복을 제외하자.

[학생의 초고]

요즘 고궁은 각양각색의 퓨전 한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퓨전 한복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으로, 한복을 입고 고궁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료 관람 혜택을 주면서부터이다. 퓨전 한복을 선호하는 경향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A] 그런데 문제는 전통 한복에서 떨어진 형태의 퓨전 한복이 늘어나 전통 한복의 훼손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퓨전 한복의 모양은 치마 속에 링 모양 뼈대를 넣어 치마를 부풀리거나, 상·하의가 분리되지 않는 서양 드레스 형태이다. 이런 퓨전 한복이 나오면서 전통 한복의 단아함과 아름다움은 찾기 어려워졌다.

또 다른 문제는 한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을 방문하여 고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고궁 근처의 한복 대여점에서 대여한 퓨전 한복을 접하게 되는데, 이들이 전통 복식의 모양에서 많이 변모한 퓨전 한복을 전통 한복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 우려되는 문제는 퓨전 한복 때문에 맞춤 제작 중심의 전통 한복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퓨전 한복은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원단과 값싼 장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이것은 자연 소재로 수작업을 해야 하는 전통 한복이 퓨전 한복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 한복 산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고궁 무료 관람 혜택을 주고자 한 취지는 전통 한복을 입도록 장려하여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궁 무료 관람으로 인해 퓨전 한복이 증가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궁 무료 관람 혜택 대상에서 퓨전 한복을 제외한다면 사람들이 전통 한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전통 한복이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8.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반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②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④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의 긍정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현재의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있다.

9.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통계 자료

ㄱ-1. 연령에 따른 한복 종류 선호도(내국인 대상)

연령대	전통 한복 (%)	퓨전 한복 (%)
20대	~15	~75
30대	~25	~65
40대	~45	~55

ㄱ-2. 전통 한복 체험 만족도 (외국인 관람객 대상)

만족도	비율 (%)
매우만족	65%
만족	27%
보통	7%
불만족	1%

ㄴ. 전문가 인터뷰

“고궁을 찾아 한복을 체험한 외국인 관람객들의 SNS를 살펴보면 레이스나 큐빅 장식을 사용한 퓨전 한복을 전통 한복으로 잘못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 한복은 동정과 고름의 형태, 소매의 둥그런 선을 특징으로 합니다. 전통 한복을 체험하거나 직접 본 외국인 대다수는 전통 한복의 곡선미와 단아함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ㄷ. 신문 기사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퓨전 한복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더위에 시달리거나 거친 원단으로 인해 피부에 상처를 입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전통 한복을 입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전통 한복도 퓨전 한복과 같이 불편할 것이라고 오인한다는 것이다.

- ① ㄱ-1을 활용하여 연령대가 낮을수록 퓨전 한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퓨전 한복으로 인해 외국인 관람객이 전통 한복에 대해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례로 제시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품질이 낮은 퓨전 한복으로 인해 한복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추가한다.
- ④ ㄱ-1과 ㄷ을 활용하여 전통 한복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전통 한복의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가한다.
- ⑤ ㄱ-2와 ㄴ을 활용하여 전통 한복을 입도록 장려하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10. <보기>를 활용하여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저고리가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던 조선 전기의 여성 한복과 달리, 18세기부터 짧은 저고리가 유행하면서 19세기에는 20센티미터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저고리가 주류를 이루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당대 여성들의 욕구가 복식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 ① 한 시대의 유행과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균형을 이룰 때 전통의 진정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
- ②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실용성을 추구하며 변화한 퓨전 한복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 ③ 우리의 한복도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므로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를 존중해야 한다.
- ④ 전통 한복의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허용 가능한 퓨전 한복의 변형 정도를 규정한다면 전통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전통 한복의 훼손을 막기 위해 전통의 긍정적 변용으로 인식되는 역사적 사례를 찾아 현대의 퓨전 한복에 적용해야 한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를 전달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구와 합성어의 경우가 그렇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ㄱ. 직장을 옮기면서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
 ㄴ. 직장을 옮기면서 작은집에서 살게 되었다.

ㄱ과 ㄴ은 비슷해 보이지만 띄어쓰기에 따라 살게 된 집의 의미가 달라진다. ㄱ의 ‘작은 집’은 ‘크기가 작은 집’을 의미하는 ‘구’이고, ㄴ의 ‘작은집’은 ‘작은아버지 집’을 의미하는 ‘합성어’이다.

이때 한글 맞춤법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살펴보면, ㄱ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하고 사전에 표제어로 오르지 않는다. 반면 합성어는 하나의 단어로 붙여 써야 하고 사전에 표제어로 오른다. 구와 합성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 요소 사이에 다른 말을 넣어 본다. 이때 ㉠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어 갈 수 있는 경우와 ㉡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전자는 ‘구’이고 후자는 ‘합성어’이다. 한편 구성 요소의 배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기도 한다. 이때 ‘구’는 순차적으로 연결되지만, ‘합성어’는 ㉢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우리말에는 형태는 같지만 기능이 달라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의존 명사는 조사, 어미의 일부 등과 형태가 같아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이들의 문법적 특성을 이해하면 띄어쓰기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의존 명사는 의미상 그 앞에 수식하는 말, 즉 관형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의존적인 말이지만 자립 명사와 같은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하여 앞말과 띄어 쓴다. 그러나 조사는 결합한 앞말과 분리해도 앞말이 자립성을 유지하므로 단어로 보지만,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그리고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분리하면 어간과 어미가 모두 자립성을 잃기 때문에 단어로 보지 않으며 앞말에 붙여 쓴다.

사전은 문법적 특징과 의미 등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띄어쓰기 여부를 확인할 때 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1. 윗글을 참고할 때, <자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 누군가 헨가방을 놓고갔다. ◦ 소가 풀을 뜯어먹었다.
 ◦ 뜯소문이 돌았다. ◦ 선생님의 설명을 알아들었다.
 ※ 밑줄 친 부분은 띄어쓰기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부분임.

- ① '헨가방'은 ㉠에 해당하니까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았겠군.
- ② '놓고갔다'는 ㉠에 해당하니까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았겠군.
- ③ '뜯어먹다'는 ㉡에 해당하니까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겠군.
- ④ '뜯소문'은 ㉡에 해당하니까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겠군.
- ⑤ '알아들다'는 ㉢에 해당하니까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겠군.

12.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만큼
 [I] 「의존 명사」
 「1」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2」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
 [II] 「조사」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데 「의존 명사」
 「1」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
-는데 「어미」
 [1]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 ①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 ②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 ③ 그 책을 다 읽는데 삼 일이나 걸렸다.
- ④ 소리가 나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 ⑤ 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13.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신라[실라] ㉡. 국물[궁물]
 ㉢. 울여름[올려름] ㉣. 해돋이[해도지]

- ① ㉠과 ㉡은 모두 앞의 음운이 뒤의 음운의 성질을 닮아 변동된 것이군.
- ② ㉠과 ㉢은 모두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군.
- ③ ㉠과 ㉣은 모두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군.
- ④ ㉡과 ㉣은 모두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⑤ ㉢과 ㉣은 모두 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14.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장의 중의성은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의성은 문장의 통사구조나 특정 어휘가 갖는 영향 범위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순을 바꿔 주거나, 문장부호나 보조사 '은/는'을 사용한다.
 [자료]
 ㉠. 친구가 모두 오지 않았다.
 ㉡. 그가 울면서 떠나는 그녀를 안아 주었다.
 ㉢. 나는 사랑스러운 그녀의 강아지를 보았다.

- ① ㉠은 수량과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함께 사용되어 중의성이 생겼겠군.
- ② ㉡은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중의성이 생겼겠군.
- ③ ㉢은 수식을 받는 대상이 불분명하여 중의성이 생겼겠군.
- ④ ㉠과 ㉡은 모두 보조사 '는'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겠군.
- ⑤ ㉡과 ㉢은 모두 어순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겠군.

15. <보기>를 참고할 때, ㉠과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중세국어에서 '의/의'는 ㉠ 관형격 조사와 ㉡ 부사격 조사로 모두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높임을 나타내지 않는 유정 명사 뒤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쓰이고, 시간이나 장소 등을 나타내는 일부 체언 뒤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한편 '의/의'는 모음조화의 양상에 따라 '의' 또는 '의'로 실현되었다.

	㉠	㉡
①	겨 ^ㅅ ㅅ 서서 (곁에 서서)	거부 ^ㅅ ㅅ 터리 곤고 (거북의 털과 같고)
②	거부 ^ㅅ ㅅ 터리 곤고 (거북의 털과 같고)	겨 ^ㅅ ㅅ 서서 (곁에 서서)
③	거부 ^ㅅ ㅅ 터리 곤고 (거북의 털과 같고)	바 ^ㅅ ㅅ 비취니 (밤에 비치니)
④	바 ^ㅅ ㅅ 비취니 (밤에 비치니)	사 ^ㅅ ㅅㅅㅅ 뜰 (사람의 뜻을)
⑤	사 ^ㅅ ㅅㅅㅅ 뜰 (사람의 뜻을)	겨 ^ㅅ ㅅ 서서 (곁에 서서)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뜻하는 말로 과학철학자인 토머스 쿤이 새롭게 제시하여 널리 쓰이는 개념이다. 쿤은 패러다임 속에서 진행되는 연구 활동을 정상 과학이라고 하였으며,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을 변칙 사례라고 하였다. 쿤은 정상 과학이 변칙 사례를 설명해 내기도 하나 중요한 변칙 사례가 미해결 상태로 남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급격한 대체 과정, 즉 과학혁명이 일어난다고 **㉔ 보았다**. 그러나 쿤은 옛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중 어떤 패러다임이 더 우월한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8세기 말 라부아지에가 새로운 연소 이론을 확립하기 전까지의 패러다임은 플로지스톤이라는 개념으로 연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리스어로 ‘불꽃’을 뜻하는 플로지스톤은 18세기 초 베허와 슈탈이 제안한 개념으로, 가연성 물질이나 금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질이다. 베허와 슈탈은 종이, 숯, 황처럼 잘 타는 물질에 플로지스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소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던 플로지스톤이 방출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플로지스톤 개념으로 물질의 굳기, 광택, 색의 변화를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플로지스톤을 잃은 물질은 쉽게 부스러지며 탁하고 어둡게 된다고 보았다. 연소 현상뿐만 아니라 금속이 녹는 현상, 음식이 소화되는 생화학 작용 등 다양한 현상이 플로지스톤 이론을 통해 이해될 수 있었다.

18세기 중반 캐번디시는 자신이 순수한 플로지스톤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다. 캐번디시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기체가 매우 잘 타는 성질을 **㉕ 띠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 기체를 ‘가연성 공기’라고 명명하였다.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이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㉖ 이 기체는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후 캐번디시는 이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되는 현상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18세기 후반 프리스틀리는 캐번디시가 발견한 가연성 공기를 활용하여 금속회*를 금속으로 환원하는 실험을 시행하였다. 먼저 프리스틀리는 물을 채운 넓은 그릇에 빈 유리그릇을 얹어 놓고 그 안에 가연성 공기를 채웠다. 그리고 그 안에 금속회를 놓고 렌즈로 햇빛을 모아 가열하였다. 프리스틀리는 금속회가 플로지스톤을 흡수하여 금속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예측대로 금속회는 금속이 되었다. 또한 유리그릇 안쪽의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유리그릇 안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소모된 증거라고 보았다. 금속에서 나온 기체가 가연성이라는 점, 그 기체를 활용하여 금속회를 금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모두 플로지스톤 패러다임 안에서 설명된 것이다.

그런데 라부아지에는 금속이 녹을 때 질량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플로지스톤 이론에 **의문을** 가졌다. 라부아지에는 연소 현상에서도 그러한 질량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정밀하게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동원하여 실험을 시행하였다. 라부아지에는 밀폐된 유리병 안에서 인과 황을 가열한 후에 가열 전과 비교하여 인과 황의 질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때 질량이 증가한 양은 유리병

속 기체의 질량이 감소한 양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라부아지에는 연소 반응에서 발생하거나 소모되는 기체를 모아 정확히 질량을 측정하면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연소는 플로지스톤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된다는 캐번디시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라부아지에는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자신의 이론으로 재해석하였다. 프리스틀리의 실험에서 나타난 현상은 플로지스톤과 금속회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금속회에 있던 산소가 유리그릇으로 방출된 것이며, 이 산소는 유리그릇을 채우고 있던 가연성 공기와 결합하여 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프리스틀리의 기존 실험은 물 위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물을 관찰하기 어려웠으나 같은 실험을 물이 아닌 수은 위에서 다시 시행하자 수은 위에 소량의 물이 형성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후 플로지스톤 학파는 기존 패러다임 안에서 이론을 일부 수정하여 라부아지에의 이론을 반박하기도 하였으나 정확한 질량 측정을 기반으로 한 라부아지에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는 끝내 명확하게 설명해 내지 못했다. 결국 플로지스톤이라는 개념과 그것으로 연소 현상을 이해하려는 패러다임은 **㉗ 사라지고**, 연소를 산소와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물질의 성질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정밀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실험 과정을 정량화하는 것으로 화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㉘ 바뀌었다**.

쿤은 과학사의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과학적 진보는 누적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의 틀 안에서 퍼즐을 맞추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뿐 새로운 과학 지식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쿤은, 하나의 이론 체계를 **㉙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의 개념, 법칙, 가정을 포함한 패러다임 전체를 믿는 행위이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옛것과 비교하여 어떤 패러다임이 더 우월한 것인지 평가할 논리적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쿤의 과학혁명 가설은 과학의 발전을 새롭게 바라보는 통찰력 있는 관점으로서 많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 사례에 주목하게 하였고, 고정된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정상 과학을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 금속회(Calx): 금속의 산화물.

1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라부아지에는 연소 실험 전후에 물질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 ② 베허와 슈탈은 종이가 플로지스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잘 타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서는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을 플로지스톤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 ④ 라부아지에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나온 기체가 가연성을 띤다는 캐번디시의 실험 결과를 반박하였다.
- ⑤ 쿤의 과학혁명 가설은 기존의 이론적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태도를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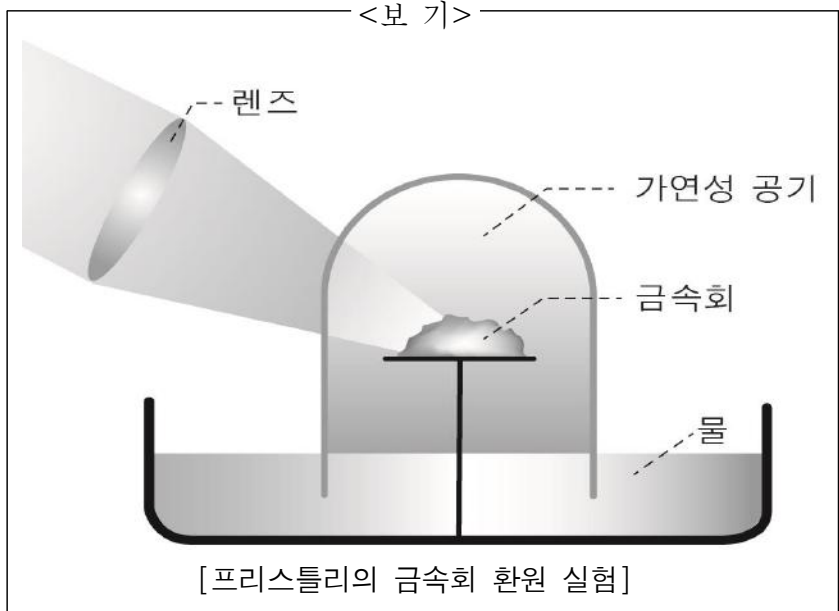
17. 캐번디시가 ㉠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기체는 잘 타는 성질을 갖고 있고 타면서 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 ② 이 기체는 금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금속이 녹슬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 ③ 이 기체는 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 ④ 이 기체는 잘 타는 성질을 갖고 있고 녹슬지 않은 금속에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 ⑤ 이 기체는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나오지 않고 가열할 때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18. 윗글을 참고할 때 라부아지에가 갖게 된 의문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는 것이라면 녹슬기 전보다 질량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 ②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는 것이라면 녹슬기 전보다 질량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 ③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는 것이라도 녹슬기 전후의 질량은 동일하여야 하지 않을까?
- ④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얻어 녹는 것이라면 녹슬기 전보다 질량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 ⑤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얻어 녹는 것이라도 녹슬기 전후의 질량은 동일하여야 하지 않을까?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프리스틀리는 가열 전의 금속회는 플로지스톤이 결합된 상태라고 보았다.
- ② 프리스틀리는 실험 과정 중 가연성 공기가 소모되어 수위가 상승한다고 이해하였다.
- ③ 프리스틀리는 가연성 공기를 활용하여 금속회를 금속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④ 라부아지에의 금속회를 가열하면 가연성 공기와는 다른 기체인 산소가 방출된다고 보았다.
- ⑤ 라부아지에의 수은 위에서 실험을 시행하면 물 위에서 실험했을 때와는 달리 새로운 물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20.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의 토머스 쿤의 주장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학이 진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과학은 객관적인 관찰과 자료 분석, 논리적인 접근으로 유도된 지식의 총합이며 이런 지식의 누적이 바로 과학적 진보이다. 뉴턴의 역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해명하므로 뉴턴의 역학이 더 진보되었다고 우리는 믿어 왔다. 그리고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열광한 것도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해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① 라부아지에는 변칙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정상 과학으로 해명하려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정상 과학은 새로운 과학 지식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연성 공기와 관련한 캐번디시의 실험은 정상 과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더 진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았던 변칙 사례가 라부아지에의 이론으로 해명되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간의 우월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은 상태 변화의 원인에, 라부아지에의 이론은 물질의 질량 변화에 각각 주목한 것일 뿐이므로 과학적 진보는 혁명적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라부아지에 역시 프리스틀리의 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론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패러다임 전체를 믿는 행위라 볼 수 없다.

21.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조망(眺望)하였다
- ② ㉡ : 소유(所有)하고
- ③ ㉢ : 생략(省略)되고
- ④ ㉣ : 전도(顛倒)되었다
- ⑤ ㉤ : 수용(受容)한다는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있는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A]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해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

(나)

㉡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 [B]

㉢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 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었다
- 나희덕, 「푸른 밤」 -

* 에움길: 굽은 길. 또는 에워서 돌아가는 길.

(다)

잡거니 밀거니 눕픈 피히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엇디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 리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궤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하니
㉤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딴 가고 빈 비만 걸렸는고 [C]
강턴(江天)의 혼자 서서 디는 헛을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헌더이고
모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D]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야 불갓는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녁진(力盡)하야 풋즘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쉼의 님을 보니
옥(玉) 궤툼 얼굴이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미움의 머근 말슴 슬궤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헌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좁은 엇디 씨똥던고 [E]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 출하리 쇠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서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 어둥정: 어수선하게. * 모침: 초가집.
* 헤쓰며: 해매며. * 바자니니: 방황하니.
* 오던된: 방정맞은. * 쇠여디여: 죽어서.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현실 자각을 통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 ② (가), (다)는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③ (나), (다)는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연민을 표출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대립적 상황 제시를 통해 포용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23. <보기>는 (가)를 읽고 쓴 비평문의 일부이다. ㉠~㉦ 중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는 문득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 이 작품은 이에 대한 답을 준다. ㉠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시련과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 ㉡ 각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그러나 ㉢ 이것은 우리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건강한 자극이다. 이를 통해 ㉣ 나와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함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시련과 고통은 피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 오히려 빈 들에서 바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듯 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는 모두 인간의 강인함을 인식하게 한다.
 - ② ㉠, ㉡는 모두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 ③ ㉠는 받아들여야 하는, ㉡는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다.
 - ④ ㉠는 화합의 이미지가, ㉡는 고독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⑤ ㉠는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준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우리 삶에서 수많은 형태로 반복되는 만남과 헤어짐은 문학 작품에서 다양하게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화자는 다가온 인연 때문에 한때는 갈등하며 방황하기도 했지만 결국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에서는 헤어짐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화자는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별을 거부합니다. 소중한 인연을 영원히 지켜내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며 운명적인 만남을 이어 가려 합니다.

- ① ㉠에서는 운명적인 인연을 애써 거부하며 방황했던 화자를 발견할 수 있군.
- ② ㉡에서는 인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화자의 내적 갈등을 알 수 있군.
- ③ ㉢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군.
- ④ ㉣에서는 소중한 인연을 지켜내기 위해 어려움을 참고 견디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에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며 운명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군.

26.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B]: 비유를 통해 화자가 한 대상만을 지향했음을 보여준다.
- ③ [C]: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를 강조한다.
- ④ [D]: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를 통해 화자의 인식 변화를 부각한다.
- ⑤ [E]: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가 꿈에서 깨게 된 원인을 드러낸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 선생 만손자가 여쭙되
 “우리 집 잔치를 벌이려 하오매 각처 손님을 청하려니와 만일 산중의 왕 백호산군(白虎山君)을 청치 아니하오면 후일에 필경 화가 될 듯하오니 어찌하오리까.”
 장 선생이 눈을 감고 오래 생각하다가 이르되
 “백호산군은 힘만 믿고 사나워 친구를 모르고, 연전에 네 아버지를 해하려고 급히 쫓아오니 네 아버지가 뛰기를 잘 못하였

던들 하마 죽을 뻔하였나니, 그러므로 내 집에 험한 기억이 있고, 또한 산군이 좌석에 참례하면 각처 손님이 필경 겁이 나고 두려워 잘 놀지 못할 것이니 청치 아니함이 마땅하다.”
 이때 이화도화 만발하고, 왜철쪽 두견화가 새로이 피고 각색 방초가 드리웠으니 만학천봉에 춘홍이 가득하여 경개절승(景概絶勝)한지라. 주인 장 선생이 자리를 마련할 새 구름으로 차일 삼고 산세로 병풍 삼고 잔디로 포진하고, 장 선생은 갈건야복(葛巾野服)으로 손님을 기다리더니 동서남북 짐승 손님이 들어올 제, 빨 긴 사슴이며, 요망한 토끼며, 열없는 승냥이며, 방정맞은 잔나비며, 요괴로운 여우며, 얼룩덜룩 두꺼비며, 까칠한 고슴도치며, 빛 좋은 오소리며, 만신이 미련한 두더지며, 어이없는 수달피 등이 앞서며 뒤서며 펄펄 뛰어 문이 메게 들어오니, 주인은 동쪽 계단에 읊하고 객은 서쪽 계단에 올라 상좌를 다투어 좌석의 차례를 결단치 못하여 분분 난잡하니 주인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두꺼비는 원래 위엄이 없는지라 여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중에 아무 말도 못하고 목구멍을 벌떡이며 영금영금 기어 한 모퉁이에 엎드려 거동만 보더니, 그 중에 토끼란 놈이 깡충 뛰어 내달아 눈을 깜짝이며 말하되

“모든 손님은 흰화치 말고 내 말을 잠깐 들어보소.”
 주인 노루 대답하되
 “무슨 말씀이오니까.”
 토끼 왈

“오늘 잔치에 조용히 좌를 정하여 예법을 정할 것이거늘 [A] 한갓 요란만 하고 무례하니, 아무리 우리 잔치인들 놀랍지 아니하라.”

노루란 놈이 턱을 끄덕이며 웃어 왈
 “말씀이 가장 유리하니 원컨대 선생은 좋은 도리를 가르쳐 좌정케 하소서.”
 토끼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가로되

“내 일찍 들으니 ‘조정은 벼슬이요 향당은 나이’라 하오니 부질없이 다투지 말고 연치(年齒)를 차례 좌를 정하소서.”
 노루가 허리를 수그리고 펄쩍 뛰어 내달아 왈

“내가 나이 많아 허리가 굽었노라. 상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하고, 암탉의 걸음으로 영금영금 기어 상좌에 앉으니, 여우란 놈이 생각하되, ‘저놈이 한갓 허리 굽은 것으로 나이 많은 체 하고 상좌에 앉으니, 난들 어찌 무슨 간계로 나이 많은 체 못 하리오.’하고 나뭇을 쓰다듬으며 내달아 왈

“내 나이 많아서 나뭇이 세었노라.”
 한대, 노루 답 왈
 “네 나이 많다 하니 어느 갑자에 났는가. 호패를 올리라.”
 하니, 여우 답 왈

“소년 시절에 호방하고 의협심이 있어 주색청루(酒色靑樓)에 다닐 적에 술이 대취하여 오다가, 대신 가시는 길을 건넜다 하여 호패를 떼어 이때까지 찾지 못하였거니와, 천지개벽한 후 처음에 황하수 치던 시절에 나더러 힘세다 하고 가래장부 되었으니 내 나이 많지 아니 하리오. 나는 이러하거니와 너는 어느 갑자에 났느냐.”

노루 답 왈
 “천지개벽하고 하늘에 별 박을 때에, 날더러 궁통(窮通)하다 하여 별자리를 분간하여 도수를 정하였으니 내 나이 많지 아니하리오.”

하고 둘이 상좌를 다투거늘 두꺼비 곁에 앉드렸다가 생각하
되, ‘저놈들이 서로 거짓말로 나이 많은 체하니 난들 거짓말
못 하리오.’하고 공연히 건넛산을 바라보고 슬피 눈물을 흘리
거늘 여우 꾸짖어 왈

“저 흉간한 놈은 무슨 설움이 있기에 남의 잔치에 참례하
여 상상치 못한 형상을 뵈느냐.”

(중략)

또 여쭙되

“존장이 천지만물을 무불통지하오니, 글도 아시나이까.”

두꺼비 왈

“미련한 짐승아. 글을 못 하면 어찌 천자 만고 역대를 이르
며 음양지술을 어찌 알리오.”

하거늘 여우 가로되

“존장은 문학도 거룩하니 풍월을 들으리이다.”

두꺼비 부채로 서안(書案)을 치며 크게 읊어 왈

“대월강우입(待月江隅入)하니 고루석연부(高樓夕烟浮)라.

금일군회중(今日群會中)에 유오대장부(惟吾大丈夫)라.”

읽기를 그치니 여우 왈

“존장의 문학이 심상치 아니하거니와, 실없이 문잡느니 존
장의 껍질이 어찌 우둘투둘하시나이까.”

두꺼비 답 왈

“소년에 장안 팔십 명을 밤낮으로 데리고 지내다가, 남의
몸에서 음이 올라 그리하도다.”

여우 또 문 왈

“그리하면 눈은 왜 그리 노르시나이까.”

“눈은 보은현감 갔을 때에 대추 찰떡과 고음을 많이 먹었
더니 열이 성하여 눈이 노르도다.”

또 물어 왈

“그리하면 등이 굽고 목정이 움츠러졌으니 그는 어찌한 연
고입니까.”

두꺼비 답 왈

“평양감사로 갔을 때에 마침 중추 팔월이라 연광정에 놀음
하고 여러 기생을 녹의홍상에 초립을 씌워 좌우에 앉히고,
육방 하인을 대하에 세우고 풍악을 갖추고 술에 대취하여
노닐다가, 술김에 정하에 떨어지며 곱사등이 되고 길던 목
이 움츠러졌음에, 지금까지 한탄하되 후회막급이라. 술을
먹다가 종신(終身)을 잘못할 듯하기로 지금은 밀밭 가에도
가지 않느니라.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또 문 왈

“존장의 턱 밑이 왜 벌떡벌떡하시나이까.”

두꺼비 답 왈

“너희 놈들이 어른을 몰라보고 말을 함부로 하기에 분을
참노라고 자연 그러하도다.”

- 작자 미상, 「두껍전」 -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은 토끼의 제안에 따라 동쪽에 있는 계단에 올랐다.
- ② 여우는 슬피 우는 두꺼비의 속마음을 의심하여 꾸짖었다.
- ③ 노루는 여우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호패를 올리라고 하였다.
- ④ 장 선생의 아들은 백호산군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었다.
- ⑤ 노루는 허리가 굽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주장하였다.

28. [A]와 [B]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고사를 인용하고 있으며, [B]는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 ② [A]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B]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
- ③ [A]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B]는 자신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부탁하고 있으며, [B]는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을 언급하고 있다.
- ⑤ [A]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으며, [B]는 상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두껍전」은 등장인물들의 행태를 통해 조선 후기 사회의 단면을 풍자한 우화 소설이다. 조선 후기는 기존의 신분 제도에 따른 지배 질서가 약화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대두되는 시기였다. 「두껍전」에서 중요한 관심사는 이전과 다른 질서에 의해 누가 상좌에 앉아야 하느냐이다. 이 질서에 따라 펼쳐지는 인물들의 행위는 풍자의 대상이 된다. 풍자는 상대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또 한문구를 이용하여 유식한 체하는 모습으로도 드러난다.

- ① 장 선생이 ‘산군’을 ‘청치 아니함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기존의 신분 질서가 약화된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② 노루가 ‘연치를 차려 좌를 정하’자는 기준에 동조하는 모습을 통해, 기존의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인물을 풍자하는군.
- ③ 여우가 ‘난들 어찌 무슨 간계로 나이 많은 체 못 하리오’라고 생각하며 언변 대결에 참여하는 장면을 통해, 비윤리적 행위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부정적인 행태를 드러내는군.
- ④ 두꺼비가 ‘부채로 서안을 치며 크게 읊’으며 말하는 내용을 통해, 유식한 체하는 인물의 모습을 풍자하는군.
- ⑤ 여우가 두꺼비의 ‘껍질’, ‘눈’, ‘목정’ 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통해, 상대에게 우위를 점하고자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을 풍자하는군.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브레송은 일상의 순간에 예술적 생명감을 불어넣은 ‘결정적 순간’의 미학을 탄생시킨 사진작가이다. 그는 피사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사체의 자연스러운 동작이나 표정을 찍는 사진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예술성을 드러내었다.

㉠ 브레송은 자신의 예술성을 드러내기 위해 안정된 구도와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여 움직임 가운데 균형을 잡아낸 사진을 촬영하였다. ‘안정된 구도’란 회화에 기초한 구도를 통해 사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사용한 회화의 구도는 황금분할 구도, 기하학적 구도, 주요 요소들

을 대비시킨 구도였다. 황금분할 구도는 3:2의 비율로 화면을 분할한 것이고, 기하학적 구도는 여러 종류의 도형이 채워져 있는 것이다. 주요 요소들 간의 대비로는 동(動)과 정(靜)의 대비, 상하 대비, 좌우 대비, 좌우 대각선 대비 등을 사용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안정된 구도의 기반이 되는 공간을 미리 계획하였다. 그리고 '유동성'은 움직이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는 자신이 미리 계획했던 구도에 움직이는 대상이 들어와 원하는 형태적 구성을 완성한 순간이 포착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다. 한편 카메라를 눈의 연장선으로 생각했던 그는, 화각이 인간의 시야와 가장 비슷한 표준 렌즈를 주로 사용해 사람의 눈높이에서 촬영했다. 이때 화각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뜻한다. 그는 표준 렌즈에 비해 화각이 넓은 광각 렌즈나 플래시의 사용을 가급적 피했다. 이런 장치를 사용하면 눈으로 보는 실제 모습과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는 『순간 이미지』라는 자신의 사진집에서 '결정적 순간'이란 어떤 하나의 사실과 관련해 시각적으로 포착된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의 긴밀한 구성을 이루고, 그 구성 안에 의미가 실리는 것을 순간적으로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라 정의 내렸다. 그는 내용과 구성이 조화를 이룬 '결정적 순간'을 발견하고 타이밍에 맞추어 촬영하였던 것이다.

이후 사진작가들에게 브레송의 미학은 큰 영향을 주었다. 1960년대부터 활동한 ㉠ 마크 코헨은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에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고자 했다. 그는 돌발성을 기반으로 한 근접 촬영 방식을 택해 독특하면서도 기발한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다. 그는 광각 렌즈를 부착한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돌발적으로 접근해 카메라를 허리 밑에 위치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각도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그는 대상의 일부만을 잘라낸 구도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플래시를 사용해 그림자의 모양을 자신의 의도대로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즉 그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사진을 촬영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눈으로 보는 세상과는 다르게 보이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자신만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이처럼 예술가가 자신이 원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은 사진작가 각자의 개성이 담긴 결정적 순간으로 확대되면서 예술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3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결정적 순간'의 미학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결정적 순간'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후에 끼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결정적 순간'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며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 ④ '결정적 순간'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⑤ '결정적 순간'을 규정하는 조건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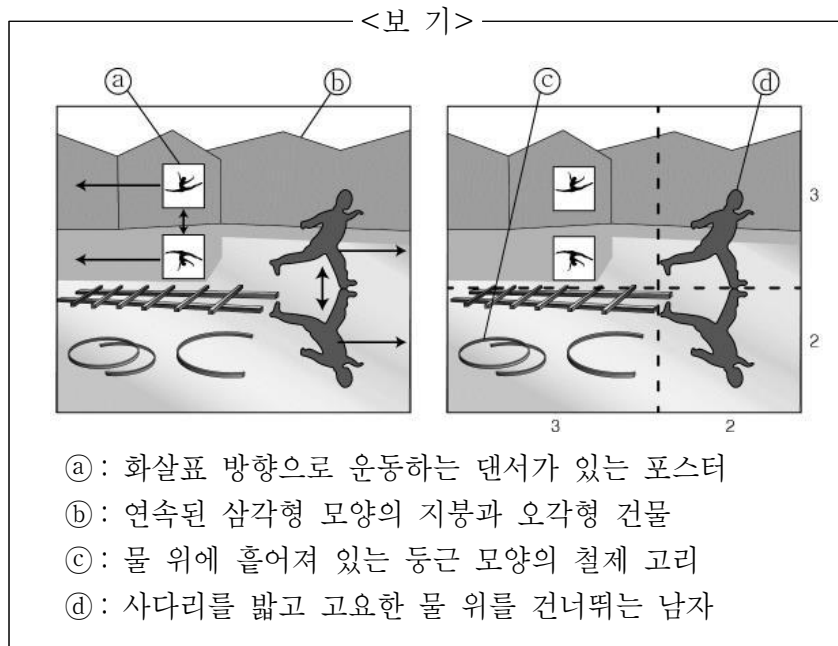
31. 다음은 윗글을 읽은 후 정리한 독서 노트이다.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알게 된 점	브레송의 사진에 회화가 미친 영향.....①
	브레송의 사진에 주로 사용된 구도.....②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 갖는 예술사적 의의.....③
더 알고 싶은 내용	마크 코헨이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렌즈.....④
	마크 코헨의 결정적 순간이 잘 드러난 대표 작품.....⑤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내용과 구성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촬영하였다.
- ② ㉠은 카메라의 위치나 렌즈 선택 시 사람 눈과의 유사성을 중시하였다.
- ③ ㉡은 근접 촬영을 통해 독특하고 기발한 이미지를 담았다.
- ④ ㉡은 인공의 빛을 이용해 눈으로 보는 세상과는 다른 순간을 포착하였다.
- ⑤ ㉠과 ㉡은 모두 돌발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진작가의 의도대로 촬영하였다.

33. <보기>는 브레송의 '생 라자르 역(1932)'을 분석하기 위한 그림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움직이는 남자와 고요한 물에서 동과 정(靜)의 대비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남자와 그림자, 포스터와 그림자의 위치에서 상하 대비를 보이는 안정된 구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③ 건물, 지붕, 사다리, 고리의 모습에서 여러 종류의 도형이 이루는 기하학적 구도를 찾아볼 수 있군.
- ④ 남자와 그림자가 일정한 비율로 분할된 곳에 위치한 것에서 황금분할에 기초한 구도를 찾아볼 수 있군.
- ⑤ 남자와 포스터 속 댄서를 좌우 대각선에 배치한 것에서 미리 계획한 구도에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내외 사정으로 경기가 불안정할 때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정부 지출과 조세 등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통화정책을 활용한다. 이 정책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달리 활용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또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긴축적 재정정책이나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올리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를 들 수 있다. 두 학파의 입장을 확장적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 통화주의는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화폐란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고, 화폐 수요는 특정한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 하는 화폐의 총액을 의미한다. 통화주의에서는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이자율이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불경기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정책을 펼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이자율이 매우 높게 상승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투자 수요는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기를 호전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것이라 주장했다. 결국 불황기에는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보다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을 택하면 재정정책과 달리 투자 수요가 증가하여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에 경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케인스주의는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투기적 화폐 수요는 통화량이 늘어나도 소비하지 않고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화폐를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이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투기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 화폐가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즉 케인스주의는 실제로 사람들이 화폐를 거래 등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가 소득의 변화보다 화폐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케인스주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의 변화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할 것이라 보았다. 이에 따라 이자율도 낮게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예상된 것보다 작게 감소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는 ㉠ 승수 효과와 ㉡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승수 효과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것의 몇 배나 되는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케인스주의는 이러한 승수 효과를 통해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케인스주의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이자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 투자 수요가 예상 투자 수요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국가가 일종의 차용 증서인 국채를 발행해 시중의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채 발행으로 시중의 돈이 정부로 흘러 들어가면 이자율이 오르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가계나 기업들의 소비나 투자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 올라가고 이로 인해 민간의 소비나 투자를 줄어든게 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화주의에서는 구축 효과에 의해 승수 효과가 감쇄되어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기대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특정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기대했던 경기 안정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이 정책들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경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 총수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구입하고자 하는 것.

34.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② 확장적 정책과 긴축적 정책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 ③ 투기적 화폐 수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④ 정부의 지출 증가가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⑤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활용하는 경기 안정 정책은 무엇인가?

3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정부의 재정 지출에 비해 더 큰 소득의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은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정부 지출을 위해 시중의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 ③ ㉠과 달리 ㉡은 정부 지출이 정부의 의도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 ④ ㉡과 달리 ㉠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 ⑤ ㉠과 ㉡은 모두 정부 지출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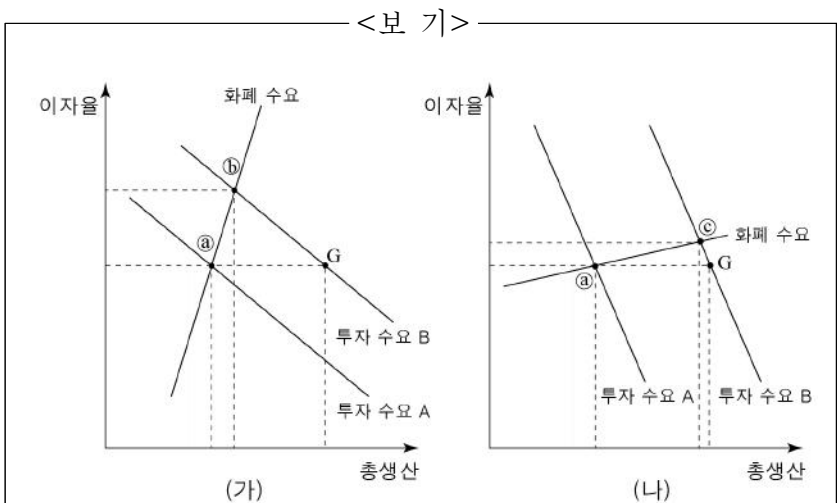
3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국내 사정으로 경기가 (A)되어 정부가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면 시중 통화량이 (B)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기가 안정되었지만 대외 경제 상황에 의해 경기 (C)이/가 우려된다면,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D) 경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A	B	C	D
①	과열	감소	과열	올려
②	과열	증가	침체	내려
③	과열	감소	침체	올려
④	침체	감소	침체	올려
⑤	침체	증가	과열	내려

37. <보기>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의 주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은 확장적 재정정책 활용 이전의 상태를, ㉡와 ㉢은 확장적 재정정책 활용 이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G는 이자율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 지출을 통해 총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지점을 가정한 것이다.
 ※ 총생산의 증가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 가정한다.

- ① (가)는 (나)에 비해 정부 지출에 따른 화폐 수요의 변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가)는 '케인스주의'의 그래프이겠군.
- ② (가)는 (나)에 비해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보아, (가)는 '통화주의'의 그래프이겠군.
- ③ (나)는 (가)에 비해 이자율에 따른 투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으로 보아, (나)는 '통화주의'의 그래프이겠군.
- ④ (나)는 (가)에 비해 국민 소득 변화에 따른 화폐 수요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보아, (나)는 '케인스주의'의 그래프이겠군.
- ⑤ (나)는 (가)에 비해 정책 활용 결과에서 도출된 총생산 값이 예상된 총생산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나)는 '케인스주의'의 그래프이겠군.

38. 문맥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서울에 올라가는 대로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 ② 압력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폭발 위험이 있다.
- ③ 그는 높은 곳에 올라가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 ④ 강의 상류로 올라가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 ⑤ 담임 선생님의 응원에 학생들의 사기가 올라갔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숙부가 별세했다는 전보를 받은 저녁, '나'는 노을을 보고 핏빛을 연상한다. 숙부의 장례를 치르러 아들 '현구'와 함께 고향을 방문한 '나'는 백정인 아버지와 살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갑득이가 뒤따르며 외쳤으나 나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땀이 쏟아지고 숨이 턱에 닿았으나, 나는 내 눈으로 그 증거물을 빨리 찾아내고 싶었다. 집 마당으로 들어섰으나 또출이 할머니는 잔칫집에 가버려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집 뒤란 채마밭을 빠져 대숲길로 들어섰다. 숨을 가라앉히고 걸으며 길섶을 살살이 훑었다. 땅을 판 자리나 웅덩이나, 양철통을 감출 만한 곳을 빠뜨리지 않고 대숲을 뒤희나갔다.

“새이야 머 찾노?”

뒤쫓아온 갑득이가 헐떡이며 물었다.

㉠ 나는 대답 않고 대숲을 빠져나와 과녁판이 세워진 언덕 길을 내리 걸었다. 선달바우산과 중앙산이 골을 파며 마주친 곳이 개울이었고, 개울 건너 완만한 더기에 과녁판이 있었다. 물 마른 개울까지 내려갔을 때, 상류 쪽에 설핏 눈이 갔다. 사태진 돌 틈으로 무엇인가 희끔한 게 보였다. 나는 개울을 거슬러 올랐다. 물 마른 모래 바닥 웅덩이 옆에 작은 양철통이 쭈셔 박혀 있었다. 그 아가리에 흰가루 묻은 옷가지가 비어져 나왔다.

“그거 아버지 주봉 아인가?”

쨍쨍한 한낮 햇볕 아래 내가 펼쳐 든 바지를 보고 갑득이가 말했다. 아버지 바지는 온통 흰 흰가루가 누덕누덕 묻어 있었다. 콩뜰이가 내 글씨보다 삐뚤삐뚤하더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버지 글씨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그러나 아버지는 글자를 쓸 줄 모른다. 백묵으로 글자를 써놓으면 그걸 그대로 베껴낼 수는 있을 터이다.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이제 나는 어느 누구 귀뚨를 들어서가 아닌, 아버지 행적에 따른 실제 증거물을 손에 쥔 셈이었다. 내 앞을 막아선 선달바우산의 길푸른 감나무잎도 그 위 더위로 끓는 하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 모든 게 물속처럼 흐릿하게 흘러갈 뿐이었다. 바지를 든 채 떨고 섰는 나를 보고 갑득이가 무엇인가 눈치를 찻는지 조그만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라모 새이야, 아버지가 어젯밤에 미창에 갔단 말이가?”

나는 아우에게,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부탁도, 또 다른 어떤 말도 못 한 채 퇴약별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망연히 섰기만 했다. 아버지마저 삼돌이삼촌이나 우출이야저씨나 저 배도수씨처럼 우리 형제를 버리고 장터마당

에서 사라진다면, 그렇게 되어 죽어버리거나 감옥소에 갇히거나 산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우리 형제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는지, 그 생각만이 크나큰 두려움으로 나를 슬픔 속에 내동댕이쳤다. 그 슬픔은 배가 고파 따위의 서러움조차 우습게 여겨질 정도여서, ㉠어떤 막강한 힘이 나와 갑득이를 엇가락처럼 꼬아 걸레 짜듯 쥐어짰다. 다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또출이할머니를 의지하고 살기엔 우리 형제는 아직 어렸다. 어느 집 끝머슴으로 뿔뿔이 팔려가는 길 밖에 없었다.

“새이야, 와 우노? 머시 슬퍼 우노? 아버지가 좌익, 그런 거해서 우나? 그라모 우리가 아버지한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빌모 안 되나? 그런 짓 하모 학교도 안 가고 부산이나 마산으로 도망가뿌리겠다고 말하지려?”

갑득이가 내 손을 잡고 흔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가자, 배 주사 집에. 우신에 묵고 바야제.”

나는 아우에게 웃어 보이며 눈물을 닦았다. ㉡나마저 울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내 다리에 힘을 뺐었다. 어느 사이 땀 뻘 손에서 구겨지고 만 장 선생님 편지 쪽지를 나는 찢어버렸다.

(중략)

노을에 비긴 고향이 차츰 내 눈앞에서 빠르게 흘러간다. 이제 언제쯤 나는 다시 고향을 찾게 될는지 알 수 없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여래리와 선달바우산이 눈앞에 스쳐간다. 숙모가 돌아가시면 그때쯤 내려오게 될는지, 어쩌면 영원히 고향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내가 고향을 버렸으므로 내려올 이유를 구태여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 산 스물아홉 해 동안 나는 하루도 고향을 잊어본 적 없다. 치모 말처럼 고향을 잊으려 노력해 온 만큼 이곳은 나로 하여금 더욱 잊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 점을 그 시절 폭동의 상처라 해도 좋고 굶주림이라 해도 좋다. 그런 이유를 떠나서라도 고향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태가 된 것만은 사실이다. 인간은 누구나 두 군데 고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나는 객지의 햇살과 비와 눈발 속에 떠돌면서도 뿌리만은 언제나 고향에 내리고 살아왔다.

산 위에 걸린 썩구름이 노을빛에 물들었다. 노을은 산과 가까운 쪽일수록 찬란한 금빛을 띠고 있다. 가운데는 별정계 타오르는 주황색, 멀어질수록 보라색 쪽으로 여러어져, 노을을 단순히 붉다고 볼 수만은 없다. 자세히 보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음에도 사람들은 노을을 단순히 붉다고 말한다. 핏빛만이 아닌, 진노란색, 옅은 푸른색, 회색도 노을에 섞여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엇인가 한 가지로 뭉뚱그려 말하기를 좋아한다. 문득 아버지와 헤어져 봉화산에서 내려온 저녁이 생각난다. 장마 뒤끝이라 노을이 아름다웠다. 폭동의 잔재도 소멸되고, 백태도 기수도 죽고 없는 텅 빈 장터마당에서 절름발이 미송이만이 홀로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다. 제대로 걷지 못하기에 하늘로 날고 싶은 꿈을 키우던 병약한 미송이가 그날따라 날려 올리는 종이비행기는 유연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노을빛 고운 하늘을 맴돌았다. “갑수야, 저 노을 있제? 저 노을꺼정 이 비행기가 날아 올라간데이. 내 태우고 말이데이.” 미송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노을에 힘차게 종이비행기를 띄워 보냈다. 미송이가 그렇게 나는 희망을 키우는 만큼, 그의 눈에 비친 하늘은 어둠을 맞

핏빛 노을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오색찬란한 무지갯빛일 터이다.

지금 노을 진 차창 밖을 내다보는 **현구 눈에 비친 아버지 고향**도 반드시 어둠을 기다리는 상처 깊은 고향이기보다, **내일 아침을 예비하는** 다시 오고 싶은 아버지 고향일 수 있리라.

- 김원일, 「노을」 -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미송이가 종이비행기를 날리던 일을 회상하며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다.
- ② ‘나’가 비밀을 지키지 못해 삼돌이삼촌과 배도수씨는 가족과 헤어져 살게 된다.
- ③ ‘나’는 주봉에 묻은 가루와 콩뜰이가 이야기한 글씨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④ ‘나’는 치모의 말을 떠올리며 고향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⑤ ‘나’는 선달바우산에서의 일을 통해 아버지의 행적을 알게 된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건의 정확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 ‘나’의 조바심이 드러나 있다.
- ② ㉡: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나’의 수치심이 나타나 있다.
- ③ ㉠: 짐작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음을 지각한 ‘나’의 막막함이 드러나 있다.
- ④ ㉡: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일어날 상황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나타나 있다.
- ⑤ ㉡: 어려운 처지에서 형으로서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나’의 책임감이 드러나 있다.

41. 노을빛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목하던 인물들이 화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② 인물들을 둘러싼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③ 인물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현실의 모순에 맞서 인물이 지향했던 삶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인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자각한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원일의 「노을」은 유년의 ‘나’와 현재의 ‘나’의 의식이 교차 서술되고 있다. 유년의 순수한 눈을 통해 이데올로기에 휩쓸린 아버지의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에게 가져다준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여 상처 극복의 과정까지는 보여 주지 못한다. 한편 아버지가 된 현재의 ‘나’는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상처가 치유되어 가는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

- ① 아버지가 ‘어젯밤에 미창에 갔’다는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년의 ‘나’가 이데올로기에 휩쓸린 아버지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이군.
- ② ‘배가 고픈 따위의 서러움조차 우습게 여겨질 정도’로 유년의 ‘나’가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버지의 행위로 인해 겪은 주변 인물들의 고통을 드러낸 것이군.
- ③ ‘고향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태’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현재의 ‘나’가 유년의 상처를 마주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뿌리만은 언제나 고향에 내리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현재의 ‘나’의 의식을 나타낸 것이군.
- ⑤ ‘현구 눈에 비친 아버지 고향’을 ‘내일 아침을 예비하는’ 고향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상처를 치유하려는 현재의 ‘나’를 확인할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서울에 살던 7살 상우는 엄마의 사업 실패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시골에 사는 외할머니에게 맡겨진다.

㉠ S#7. 동네 정류장 (해질녘)
 요란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떠나는 버스. 뿔뿔이 떨고 있는 상우와 할머니. 상우는 역시 먼지를 질색한다. 할머니는 앉으나 서나 상우의 키만 하다. 꽤 꼬부랑이시다. 벌써 노을이 지려 한다. 서먹서먹한 둘.
 할머니, 같이 가자는 시늉을 하자 상우는 더욱 할머니를 우습게 보고, 상우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자 할머니 혼자 앞서 걷는다. 사이가 멀어지자 그제서야 걷기 시작하는 상우. 할머니, 가다가 돌아보면 상우는 판전을 피우고, 다시 할머니가 걸으니까 상우도 마지못한 듯 따라간다. 카메라, 앞뒤로 떨어져 걷는 둘과 노을 지는 하늘을 멀리서 잡는다.

S#54. 장터 노점상 앞 (아침)
 모퉁이에 숨어서 보고 있는 상우. 창피하고 난감하고 슬픈 표정이다. 길 건너편에서는 할머니가 보따리를 풀고 앉아 나물과 채소를 팔고 있다. 젊은 엄마들 사이에 끼어서 손님을 향해 손짓을 하는 할머니. 더 집어 가는 손님을 막지 못하고 손해 보듯 팔고 있다. 할머니 때문에 슬프고 화난다.

S#56. 중국 음식점 (낮)

허름한 중국집. 그래도 손님은 많다. 상우는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고 있고, 할머니는 양파 한 점을 오물거리며 간간이 엽차를 마신다. 자기만 먹는 게 신경 쓰인 상우가 할머니를 보면, 할머니는 ‘어여 먹어. 난 배 안 고파’라는 손짓을 해 보인다.

(시간 경과)

계산대 앞. 허리춤에서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몇 장을 꺼내 간신히 계산을 하는 할머니. 전 재산인 듯한 분위기. 상우, 그 광경을 유심히 본다.

㉡ S#63. 동네 정류장 (해질녘)

상우, 정류장까지 또 와 버렸다. 버스 한 대가 금방 도착하고 내리는 사람 없이 떠난다. 그런데 저 멀리 버스가 온 방향에서 할머니가 걸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보따리를 힘들게 들고서. 의아해하는 상우. ‘왜 버스를 안 타고 걸어올까?’ 무척 피곤해 보이는 할머니의 땀에 전 얼굴을 보고 상우는 짐작이 간다. 울고 싶어진다…….

할머니: (수화로) ‘왜 나와 있어? 집에 있지.’

상우는 미안한 마음에 심통을 부린다. 할머니는 예의 그 ‘미안’이라는 뜻의 수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상우가 짜증을 안 낸다. 대신 할머니의 보따리를 화난 듯 낚아채고 성큼성큼 앞서 걷는다. 걷다가 생각난 듯 주머니의 초코파이를 꺼내 보따리에 살짝 넣어준다.

S#83. 방 (밤)

상우, 지나간 달력 뒷면을 펼쳐 놓고 할머니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다. ‘아프다’, ‘보고싶다’라는 단어가 상우의 솜씨로 큼지막하게 쓰여 있다. 할머니, 상우가 써 준 글자를 따라 써 보지만 눈도 잘 안 보이고 게다가 까막눈이 아니던가……. 글자 폼이 영 아니다.

상우: (자기가 쓴 글을 짚으며) 이걸 ‘아프다’, 요건 ‘보고 싶다’ 써 봐, 다시.

할머니, 미안한 표정으로 애를 써 보지만 역시 이상한 선만 그어진다.

상우: 에이 참! 그것도 하나 못 해? (화를 내지만 예전의 상우랑은 다르다.)

할머니, 다시 노력해 보지만…….

상우: 할머니 말 못하니까 전화도 못 하는데 편지도 못 쓰면 어떡해……!

할머니, 면목 없다는 듯 노력해 본다. 애처롭다.

상우: (그 모습 보다가) …… 할머니, 많이 아프면 그냥 아무 것도 쓰지 말고 보내. 그럼 상우가 할머니가 보낸 건 줄 알고 금방 달려올게. 응? 알았지? (울먹울먹하더니 줄줄 운다.)

할머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지라 연필을 꼭 쥔 채로 고개만 주억거리며 눈물을 참는다. 잠시 우는 시간…….

(시간 경과)

할머니는 자고 있고, 상우는 구석에서 등 돌리고 무엇엔가 열중. 보면, 바늘에다 실을 꿴고 있다. 적당한 길이로 실을 끊는다. 반질고리의 모든 바늘에 실을 꿴어 놓았다.

S#86. 마당 (밤)

창호지 문으로 보이는 실루엣. 흐릿한 불빛 아래 상우가 바닥에다 대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다. 밤이 깊어가도록.....

㉠ S#87. 동네 정류장 (낮)

엄마, 상우, 할머니가 서 있다. 상우는 올 때와 달리 단출한 짐이다. 많이 운 얼굴이다. 버스가 온다. 상우, 타기 전에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소중하게 건네고 뺨 돌아 타 버린다.

차창에 작은 키로 붙어서 상우를 보려고 애쓰는 할머니. 상우, 할머니를 외면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는 듯.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할머니를 보려고 뒷좌석으로 달려간다. 멀어져 가는 할머니를 놓치지 않으려는 다급함으로 '미안' 수화를 보낸다. 글썽글썽..... 할머니, 아쉬움에 차를 쫓지만 금세 멀어진다. 그래도 계속 따라간다. 이미 차는 꿈지도 안 보이는데..... 할머니, 드디어 멈춰 선다. 미동도 않고 버스가 사라진 길만 보고 있다. 한참을 보다가 상우가 주고 간 것들을 펴 본다. 상우가 아꼈던 로봇 그림엽서들이다. 뒤집어 보면 다섯 장 모두에 주소와 상우 이름이 상우 글씨로 쓰여 있다. 보내는 사람 칸에는 '할머니', 우표 칸에는 '상우한테 바드세요', 사연 칸에는 할머니가 누워 있는 그림과 할머니 얼굴 그림이 한 장마다 번갈아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아프다', '보고싶다'라고 쓰여 있다. 모두 다섯 장. '아프다', '보고싶다', '아프다', '보고싶다', 그리고 '보고싶다'..... 엽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할머니의 거친 손이 눈을 찌른다.

할머니가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멀리서 보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곡차곡 걸어가는 뒷모습.....

- 이정향 극본, 「집으로」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우는 할머니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여 도움을 주려 한다.
- ② 상우는 서울로 돌아가며 시골에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 ③ 상우는 할머니가 동네 정류장까지 걸어온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 ④ 할머니는 상우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려고 시도한다.
- ⑤ 할머니와 상우는 수화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44.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물리적인 거리로 보여 준다.
- ② ㉠에서 '정류장'은 동행의 출발점으로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는 가깝지 않다.
- ③ ㉡에서 인물의 달라진 심리적 거리감은 물리적 거리에 영향을 준다.
- ④ ㉡에서 '정류장'은 만남의 공간으로 인물 간의 가까워진 심리가 드러난다.
- ⑤ ㉡에서 인물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서 심리적 거리도 멀어진다.

45. 다음은 윗글을 영상화하기 위한 촬영 및 편집 계획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촬영 및 편집 계획

- S#54에서 슬프고 화가 나는 상우의 표정을 강조하기 위해 할머니를 바라보는 상우를 멀리서 촬영해야겠어. ㉠
- S#56에서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로 간신히 계산하는 할머니의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할머니의 의상을 허름한 것으로 준비해야겠어. ㉡
- S#83에서 상우의 진심을 보여 주기 위해 겉으로는 화를 내는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는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느껴지게 연기하도록 해야겠어. ㉢
- S#83에서 관객들이 할머니와 상우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할머니가 눈물을 참는 부분부터 슬픈 배경음악을 삽입해야겠어. ㉣
- S#87에서 관객들에게 여운을 남기기 위해 할머니의 뒷 모습이 있는 마지막 장면을 서서히 어두워지게 편집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